

# 홍천신문

행복한 어르신! 가고싶은 복지관! 함께하는 지역복지!

2024년 6월 (제121호)

발행처 홍천군노인복지관  
발행인 현윤재  
창간일 2014년 5월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읍 태학여내길 80-3  
전화 033-430-8700 FAX 033-430-8790  
홈페이지 www.hcknowin.org/

## 복지관 소식

# 2024년 어버이날 행사 ‘아름다운 오늘, 어버이 꽃이 피었습니다.’ 개최



5월 8일(수)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버이날 맞이 ‘아름다운 오늘, 어버이 꽃이 피었습니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 어르신들의 풍물놀이와 아코디언 연주, 지역 가수 공연, 어린이집 아동들의 장구·소고 공연 및 카네이션 전달식, 추억의 옛날 교복 포토존, 자개 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후원	그린플라워/검도교실/내고향마트/너브내행복나눔재단/대명종합광고/대성/만원의 힘/바잉마트/부창부수/새홍천로타리/아하그린푸드/우리농업지킴이운동 강원지역본부/이웃/장락만년/착한과일/킹마트/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한국도로공사 홍천지사/한국전력공사 홍천지사/홍천축협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지병임/김명자/남궁호선/박유선/신동천/양재수/오승훈/이성일/이성철/이종심/장용기
자원봉사 및 부대행사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이웃/포토채널/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홍천군지회/한국주택금융공사 강원서부지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홍천군지회/해맑은 어린이집/홍천군안전보안관/홍천군어린이집연합회/홍천군여성의용소방대/홍천보건소

# 말벗 도우미 양성 교육 프로그램

홍천북방노인복지관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10명의 어르신과 함께 말벗 도우미 양성 교육 프로그램 ‘내 손을 잡아’를 진행하고 있다.

말벗 도우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진행해오고 있으며, 참여자는 심리 상담 이론교육을 수강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한 후 실습 과정으로 동년배 1:1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 실습은 북방고령자복지주택 거주 어르신 10명과 함께 안부 묻기 및 소통, 고민 상담, 실버 공예 및 미술을 활용한 심리 상담 등 많은 회기를 거쳐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갖는다.

살아온 배경이 다른 낯선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어떻게 좋은 관계를 형성해야 할지 생각하고 이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단순 상담만으로 내담자의 경제적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나의 안부를 묻고, 고민을 들어주고,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 심리적 치유와 정서적 지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말벗 도우미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계기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만이 아닌, 더 나아가 지속해서 관계를 맺고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친구 관계로 발돋움할 수 있길 바란다.

김동식 기자  
(dong-sik@hanmail.net)

## CONTENTS

- 01 - 복지관 소식
- 02 - 복지관 소식·지역 축제
- 03 - 지역 탐방
- 04 - 기관 탐방
- 05 - 인물 탐방
- 06 - 노년기 삶
- 07 - 환경 캠페인
- 08 - 인생 칼럼



후원계좌 : 국민은행 313501-04-161305 농협 301-0084-3440-11 우체국 200238-01-006584

\*보내주신 후원금(물품)은 기부금공제법 제 25조에 의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SSN 사회복지법인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홍천군노인복지관

복지관 소식

## 만원의 힘 후원회장 이·취임식



5월 23일 목요일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는 만원의 힘 후원회 제1대 송의순 회장의 뒤를 이어 제2

대 박형균 회장이 취임하여 이·취임식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만원의 힘 후원회는 2017년부터 홍천군노인복지관 코어 요가반 김창열 강사와 18명의 수강생이 월 만 원씩 모아 쌀 한 가마 후원을 목표로 시작된 후원 모임이다. 현재는 250명의 개인 후원자와 35개의 후원 업체가 매달 만 원씩 후원에 동참하여 지역사회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해 명절, 어버이날, 흑서기 및 흑한기 등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동해시 산불 성금,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성금, 청소년 장학 사업 지원 등 선행에 동참하고 있다.

박형균 신임 회장은 “만원이 모여 큰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기적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임원진들과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만원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바란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지역 축제

## 2024년 강원n 홍천 산나물 축제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 총 3일간 도시산림공원 토리숲에서 홍천문화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홍천군이 후원하여 갖가지 산나물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강원n 홍천 산나물 축제’가 성황리에 열렸다. 4회차인 ‘홍천 산나물 축제’와 ‘강원 산나물 어울림 마당’이 통합하여 개최되었으며 도내 18개 시군의 임업인들이 직접 생산하고 채취한 각종 산나물을 만나볼 수 있었다.

축제는 겨우내 신선한 산나물 섭취 부족으로 나른한 몸을 깨울 수 있는 봄기운 가득한 두릅, 곰취, 명이, 눈개승마 등 나물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다. 도 지역 전체의 85%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해발고도가 높은 청정 강원지역에서 자라난 제철 산나물이 한자리에 모여 구매하려는 사람들과 지역 축제 체험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개막식 때 이루어진 김소영 작가의 화려한 캘리그래피 퍼포먼스와 대형 연날리기, 초대형 비빔밥 나눔 행사가 눈길을 끌었다.

입구에서부터는 계절과 관계없이 즐길 수 있는 벗짚을 이용한 ‘썰매체험’, 조속한 홍천 전철 개통을 기원하기 위한 기차 투어, 산나물 이름 맞추기 이벤트, 산나물을 구매 영수증을 가져오면 참여할 수 있는 산나물 모종 심기 체험, 미술협회 홍천지부 회원들의 산나물 아트 체험, 그 자리에



서 바로 떡을 맛볼 수 있는 떡메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또한, 축제하면 빠질 수 없는 먹거리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었다. 홍천의 특산품인 잣을 버무려 고소한 맛이 일품인 홍천 잣 떡, 생활개선회에서 개발한 마늘 향이 나는 명이를 이용해 만든 알찬 명이 핫도그와 명이 호떡, 향이 독특한 곰취로 만든 곰취 찜빵, 꽃차 전시 및 시음 등이 있었다. 특히 한돈 셀프식당은 홍천 맛돈 판매장에서 저렴하게 구매한 고기를 바로



구워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산나물 먹거리도 준비되어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아 앞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지자체에서 지역의 특성을 잘 살리고 주민 간 화합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한 축제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역을 넘어 세계화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히 있다. 홍천도 앞으로 이어지는 찰옥수수 축제, 별빛 음악 맥주 축제, 인삼·한우 명품 축제, 사과 축제, 곰팡 축제와 여러 가지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를 특색있게 준비하여 지역 주민과 외지인들이 ‘홍천’ 하면 ‘축제의 도시’라고 떠올리고 기대할 수 있도록 군과 민이 화합하여야 할 것이다.

서행연 기자  
(bonbon2202@naver.com)

지역 탐방

# 영귀미면 ‘장풍이체험학교’



어릴 적에 가끔 발견하면 손가락이 짝일까 봐 걱정하며 놀던 집게벌레가 생각난다. 밤이 되면 숲을 수놓았던 반딧불이, 등잔이나 호롱불에 부딪히게 만들어 잡던 풍뎅이도 우리의 유년 시절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고 있다.

반면 예전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환경의 변화로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통해 교류하고 친목 활동을 즐기며 추억을 쌓는다. 또한, 건물이 들어서고 도로가 깔리면서 옛 추억의 곤충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흥천군 영귀미면 개운리에서는 이러한 곤충들을 보존하고 사육하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자연을 느껴볼 수 있는 ‘장풍이체험학교’를 운영 중이라고 하여 찾아가 보았다.

## 장풍이체험학교

장풍이체험학교의 박명수·조영혜 부부는 흥천군 제1호 치유농업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국가 인증의 교육 및 체험을 통한 치유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자 장풍이체험학교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는 교육부의 진로체험 인증기관, 농촌진흥청의 농촌교육농장, 농림축산식품부의 식생활 우수 체험 공간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흥천교육지원청 및 흥천군청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공예 체험, 도미노 체험, 청산별곡, 골프, 텃밭 가꾸기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처음 방문한 회원은 등록 절차와 간단한 안내를 받게 된다. 교육관에서 오리엔테이션 및 안전교육을 마치고 힐링 정원에서 건강 허브 체험, 건강음료 및 간식 만들기 활동을 한다. 대부분의 활동이 조별 형식으로 참가자들끼리 서로 어울리는 모습은 현대 사회 경쟁체제와 상반되어 보고만 있어도 행복함이 느껴졌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곤충 체험에서는 사육장에서 가져온 장수풍뎅이 집을 직접 꾸미고 각각의 쌍을 입양할 기회가 주어진다.

## 참가자 가족

참가자 중 서건호 어린이의 가족을 소개한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아이들을 위해 주말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하던 중 장풍이체험학교 리플렛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무서워할까 봐 걱정하기도 했지만, 생각과 다르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에서 값진 선물을 받은 느낌이라고 했다.

## 교육 효과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참가자 가족 중 아이의 활동 도우미 역할을 어머니들보다도 아버지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여자아이들보다는 남자아이들이 비교적 더 많이 곤충을 채집하고 놀기 때문에 보여지는 양상이었다. 이는 부모의 유년 시절 추억과 현재 아이가 만들어가는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기에 더욱 값지게 느껴질 것 같았다.

아이들은 장수풍뎅이가 자신의 손등을 기어가는 체험활동이 무서울 만만해도 앞에서 먼저 체험하는 아이를 흥미롭게 보며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에서 무서움보다는 호기심과 도전력을 가진 아이들 내면의 잠재된 모험심을 볼 수 있었다.



그룹 활동을 통해 얻는 협동 정신은 이 시대에 학교로 내몰린 청소년들에겐 꼭 필요한 필수 덕목이기도 하다. 새로이 급변하는 시대에서 책을 통한 지식교육도 필요하지만, 체험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협동심, 도전력, 창의력은 아이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도시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농촌만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리매김할 때 우리 농촌은 밝은 미래가 찾아올 것이다.

심연흠 기자  
(simmusic@naver.com)

기관 탐방

# 북방면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기



〈북방면건강생활지원센터 전경〉

북방면에는 다른 읍·면 보건소와는 다르게 건강생활에 관하여 진료하는 보건소의 개념이 아닌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북방면 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18년 1월 20일에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도는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북방면에서는 지역 주민 모임을 통해 스스로 건강한 마을을 만들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마을의 건강 해악 요인을 파악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지도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분야별로 크게 나누면 만성질환 관리(고혈압 당뇨)와 걷기운동의 생활화, 필라테스, 헬스, 탁구로 건강 다지기, 초등학교 영양 강습 및 운동 지도, 요리 교실, 구강 관리(치솔질 중점교육), 심폐소생술 등을 지도하고 있다.

### 체력단련실과 영양교육실

2층에는 영양교육실과 남성들을 위한 요리시설로 조리를 할 수 있도록 싱크대 세트 8대가 설치되어 있어 요리 강사가 남성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리를 지도하고 있다.



평소 요리를 해본 경험이 없는 남성 어르신들은 스스로 할 수 있음에 놀라고, 맛에 놀라고, 배우자의 기뻐하는 모습에 놀라 만족도가 높다고 한다.

3층 건물 1층의 체력단련실에는 운동 시설들이 종류별로 갖추어져 있어 누구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건강생활을 위한 분야별 지원과 교육, 체험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마련되어 있다.

### 라지볼 탁구 강습

3층에는 체조 교실 겸 탁구 교실로 2대의 탁구대가 설치되어 있고 탁구 강사 2명이 타이머를 20분에 맞춰 개인 지도를 하고 있다. 탁구공은 일반 볼보다 지름이 4mm 더 큰 주황색의 라지볼(large ball)을 사용하는데 속도가 비교적 느리므로 어르신들이 운동하기에는 좋다고 한다.



현재 강의하는 두 분의 강사는 홍천군노인복지관에서 파견되어 봉사활동으로 탁구 강의를 하고 있다. 탁구 강의 봉사를 하시는 선생님 중 한 분은 홍천군노인복지관 탁구반의 반장으로 관리책임을 맡아 이끌어 가시는 최정규 강사님이다. 앞으로 홍천에 라지볼 탁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더 많은 강사가 탁구 지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전했다.

### 화계초등학교 운동 지도와 영양 강습

화계초등학교 체육관에서는 주 1회 운동 지도 전문 강사가 놀이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긍정적 자아상에 관한 대화와 비만 예방 교육 등을 지도한다. 더불어 영양 강습을 통해 좋은 식습관을 길러주고 간단한 요리 실습도 이루어진다고 한다.

### 걷기 운동의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라는 말이 요즘 노인들에게 유행어가 되고 있다.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면 누워서 쉬고 싶지만,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경험하게 되어 더욱 열성을 다하여 참여하게 된다고 한다. 또한, 걷기 캠페인으로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도 지급하며 걷기 운동을 독려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노인들의 삶의 변화에 따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므로 활기찬 생활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삶의 실현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어 가고 있다.

김순화 기자

(hereme50@naver.com)

인물 탐방

# 흥천군 경로당의 분회장을 찾아서 5탄 (내면 김문규 분회장)



내면 분회 사무실에 찾아가 김문규 분회장과 울전1리 이근학 경로당 회장, 자운2리 최선현 경로당 회장을 만나 밝고 내면 경로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김문규 분회장〉

내면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문규 분회장은 2021년에 취임하여 현재까지 내면의 총 19개 경로당을 관장하고 있다. 각 경로당은 노래 교실, 요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회원들이 건강도 지키고 쌓인 스트레스도 풀며 생활하고 있어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신다고 한다. 또한, 시기에 맞게 농작물을 재배해야 해서 대부분의 경로당 어르신들은 부지런하다고 한다.

매년 월례 행사로 봄과 가을 연 2회 관내 19개 경로당 회장, 총무 그리고 각 단체장을 모시고 45인승의 넓은 관광버스를 대여하여 나들이를

간다고 한다. 작년 봄에는 청와대를 즐겁게 다녀왔고 가을에는 명산을 찾아 바닷가 쪽으로 떠나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

내면 19개 경로당 회원 중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총 270여 명이며 김문규 분회장이 사무장과 함께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의 특성상 거리가 멀고 범위도 넓어 어려움은 있으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 산나물의 고장 내면

내면은 고랭지 지역으로 산나물을 재배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내면에 있는 솔안골 농장은 산골 600m 고지대 청정지역에 약 5,000여 평의 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요즘 떠나는 추세라 어려움이 있지만 내면 19개의 경로당 어르신들이 고랭지 채소 재배 작업에 일조하고 있어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매년 흥천에서 4월마다 진행되는 산나물 축제에 대비하여 오미자, 두릅, 명이, 엄나무순, 곤드레, 취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강원n 흥천 산나물 축제에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 내면 울전1리 & 자운2리 경로당 활동 이야기

울전1리 경로당 이근학 회장은 내면 방내보건

진료소에서 주 1회씩 매번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혈압, 당, 치매 등 어르신들의 몸 상태를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하였다.

회원 60여 명과 함께 희로애락을 하는 가운데 최고령자 이근녀(95세) 어르신은 부모 같고 딸 언니로서 타에 모범이 되신다고 한다. 건강의 비결은 욕심을 갖지 않고 이해하며 작은 것도 베푸는 마음으로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조언하신다.

내면 자운2리 경로당은 넓은 지역으로 인해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다. 이에 따라 회원들도 한 곳은 60명, 다른 한 곳은 50여 명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만약 행사를 개최할 때면 두 곳에서 번갈아 진행하기에 재미도 두 배가 된다고 한다.

자운2리 최선현 회장은 경로당 회원들을 위해 일 년에 한두 번씩 지역 단체장, 새마을부녀회 등 다 함께 모여 월례 행사를 치른다고 한다. 막국수, 떡, 음료 등 맛있는 음식과 함께 흥과 노래로 잔치를 벌여 하루를 보낸다고 한다.

내면 김문규 분회장, 울전1리 경로당 이근학 회장, 자운2리 경로당 최선현 회장은 입을 모아 내면 모든 면민 모두가 건강하시고 경로당이 건강과 웃음에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며 끝을 맺었다.

안태수 기자

(taesu9110@naver.com)

**노년기 삶**

# 노인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안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수가 1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는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이라는 말이 된다. 즉, 노인이 넘쳐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농촌은 이미 오래전부터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커녕 젊은 사람조차 구경하기 어렵다. 아이들이 없으니 웃을 일도 없고, 새로운 이야깃거리도 별로 없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다.

## 늘어나는 독거노인

독거노인비율(통계청 자료)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65세 이상 인구(명)	8,151,867	8,569,865	8,981,133	9,435,816
65세 이상 1인 가구수	1,617,739	1,762,969	1,875,270	1,993,334
독거노인 비율(%)	19.8	20.6	20.9	21.1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비율보다 더 빠르게 노인 단독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독거노인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노인 단독 가구수의 증가 원인은 첫째,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개인화, 산업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 둘째, 미혼, 이혼, 사별 등 자발적·비자발적 이유로 혼자 살기를 희망, 셋째, 가족해체 및 부모부양에 대한 인식변화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지속되고 더 가속화될 것이다. 독거노인은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빈곤과 질병, 자살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독거노인과 관련하여 고독사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등장한다. 이때마다 사회의 안타까운 시선이 보도되고 더욱 촘촘하고 세심한 실태 파악과 안전망 구축이 거론되곤 한다. 그런데도 독거노인 관련 사건은 계속 터지고 있다. 그때마다 같은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어떤 대책이든 문제를 100%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우리나라는 1일 생활권이 되었지만, 노인의 생활공간은 여전히 지역사회다. 읍면지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노인복지를 위한 기관이나 시설이 많이 설립되었음에도 단위 지역의 노인이 접근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고, 알더라도 실제로 이용하기에는 교통과 시간 등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나마 유일한 모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조차 접근성과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인해 그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 장수가 축복이 아니었던가?

노인은 신체적·정신적 기능이 떨어진다. 아무리 왕성해 보여도 세월에 따른 변화는 어쩔 수가 없다. 2030년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90.8세, 남성은 84.1세로서 세계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높다. 심지어 조사대상국 전체에서 기대수명이 90세를 넘는 경우는 한국 여성이 유일하다. ('노인을 위한 동네' 서울연구원, 2019년) 5~6년 후에 한국에서 노인으로 사는 기간이 남자 20년, 여자 25년이 된다. 이 기간에 노인 대부분이 빈곤, 질병, 고독 등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장수가 축복이었던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다. 그렇다고 저주라고 말하기에는 두려움이 앞선다. 늘어나는 수명을 어쩔 수 없다면 노인의 삶이 단지 고통만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축복이고 행복이 될 방법은 없는 것인가?

요즘 각종 매체나 유튜브를 통해서 노인의 삶이 얼마나 버거운가를 보여주는 내용들로 넘쳐나고 있다. 실상을 아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노인 문제의 초점이 주로 빈곤 문제에 맞춰져 있다. 물론 빈곤 문제가 심각하고 그로 인해 많은 문제가 파생된다는 데에 이의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빈곤 문제만이 노인 문제가 아니고 더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 '돌만 낳아 잘 기르자'의 참담한 결과

1960년부터 시작된 산아제한정책은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라는 구호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려주며 즐기게 진행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 '딸, 아들 구별 말고 돌만 낳아 잘 기르자'로 이어지다 급기야 1980년대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로 정착되어 갔다. 산아제한정책은 성공했지만, 그것이 지나쳐 인구 감소 위기에 이르자 1989년에 산아제한정책을 포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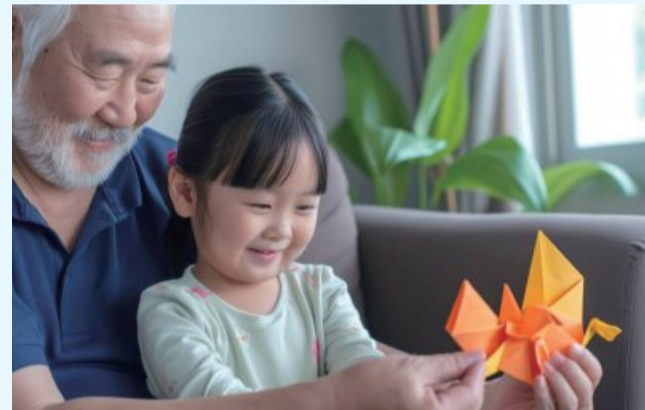
불과 30년도 되지 않아 인구정책은 실패로 끝난 것이다. 그 후유증을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앓고 있다. 국가의 존망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은 더 이상 출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해 되었다. 절망적인 현실 앞에 어떤 구호도 설득력이 있을 수 없게 되었다. 노인은 갈수록 늘어나고 아이들은 갈수록 줄어든다.

## 노인과 어린이 - 만남의 광장

복지에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 기존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노인 대부분은 아이들을 좋아한다. 아이들은 꼭 노인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 있다. 부모와 교육기관에서 받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르다.

경로당과 어린이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의 만남은 어떨까? 1세대와 3세대의 만남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요즘 그런 만남은 극히 간헐적이거나 연례행사 형식의 만남인 경우가 많다. 1세대인 노인들은 3세대인 어린이들을 통하여 활력과 존재가치를 얻고, 어린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푸근함과 안정감 그리고 지혜와 기능을 얻을 수 있다.



<노인과 어린이의 만남은 활력과 포근함을 나눌 수 있다.>

과거 대전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종사하던 P씨(62세, 여)는 어린이집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동네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약 500m가량 떨어진 거리에 있었는데, 원아들을 데리고 매주 1회 씩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과 어린이의 만남의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서먹서먹했는데, 만남의 횟수가 거듭될수록 경로당의 노인들이 국악과 만들기 등을 원아들에게 가르치고, 원아들은 신기해하며 배우고, 노인들을 위해 율동도 보여드리고 노래를 불러드리기도 하면서 1회에 2시간 정도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중에는 경로당 노인들이 과자 등 먹을거리를 원아들에게 제공하고 프로그램도 주체적으로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로부터 정말 큰 사랑을 느끼고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누렸습니다. 노인들과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서로 윈-윈 하는 행사였습니다.

비록 이런 행사가 어디에서나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인과 어린이의 만남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노인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게도 좋은 정서적 풍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성문영 기자  
(sunggoodnews@naver.com)

환경 캠페인

# 재활용 자원으로 환경보호



〈널브러져 있는 생활 쓰레기들〉



〈홍천군 소각장〉

현대사회에서 점점 커지는 불가피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쓰레기 문제이다.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우리의 삶과 미래에 대한 중대한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민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그 시작은 지금부터다.

한국 환경연구원(KEI)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 5천 50명을 상대로 조사한 2021년 국민 환경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환경문제로 '쓰레기·폐기물 처리 문제'와 '과대포장에 따른 쓰레기 문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길을 가다 발견한 쓰레기 배출 장소에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거나 재활용하지 않은 채 음식물까지 그냥 담아 버려 악취가 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한다. 또한, 가까운 마트를 가보면 진열대에는 상품을 보기 좋게 하려고 과대 포장한 채 진열돼 있다.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고 분리수거를 올바르게 하며, 과대포장은 소비자가 선별 구매한다면 좀 더 환경을 위한 발걸음이 되지 않을까?

홍천군은 올해 초부터 공공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및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기존 공공주택만 시행하던 비닐류 수거를 읍내 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향후 수거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주민들의 인식이 개선되면 홍천군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폐비닐이라고 해서 모두 되는 것은 아니며 포장지를 확인해보면 '비닐류(OTHER)'라고 삼각형으로 표기된 과자 봉지나 라면 봉지 등이다. 만약 이물질이 묻었다면 제거 후 배출해야 한다.

그동안 주민 편의 및 주변의 청결한 환경을 위해 주민들이 배출한 자원을 일괄 수거했으나 분리 배출된 재활용 가능 자원이 혼합 수거돼 선별력이 저하되면서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소각하거나 외부 재활용사업장으로 위탁 처리되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는 요일별로 수거 품목을 지정하여 수거하고 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은 크기별로 구분된다. 자동선별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 재활용품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수거하고, 선별 컨테이너에 투입되지 못하는 대형재활용품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수거한다. 또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요일과 토요일은 성상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수거해 운영하고 있다. 군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시행하는 것인 만큼 우리 주민 모두가 각자 철저히 분리해서 배출하

는 노력을 보여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현재 당면한 쓰레기 분리의 심각성을 보려고 직접 홍천읍 하오안리에 있는 홍천군 소각장을 방문하였는데, 선별장의 재활용 쓰레기 더미를 보고 나부터 철저히 분리를 해야겠다고 새삼 느끼게 되었다.

관계자에 의하면 재활용품은 꼭 투명 비닐에 담아서 배출해 주길 권고했다. 또한, 많은 사람이 실수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스티로폼 배출 방법인데 꼭 테이핑을 제거해야 하고 이물질이 묻었다면 깨끗하게 씻은 후 배출해야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버린 재활용 쓰레기 중 현재 재활용은 5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니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할 필요성을 느낀다. 재활용 플라스틱 그릇에 감자탕을 먹고 난 뒤 일반 쓰레기로 배출되어야 하는 돼지등뼈를 그릇에 담아 재활용 봉투에 배출하는 주민이 있는가 하면 농약병, 동물의 사체 등 버려선 안 되는 것들이 버젓이 재활용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실태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행동은 삼가야 하지 않을까?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나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므로 궁극적인 변화를 위해 모든 주민이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환경보호에 앞장서주길 바란다.

이복여 기자  
(boy1145@hanmail.net)

**인생 칼럼**



**석도익**  
소설가

우리가 쓰는 말에 ‘말’은 세 가지가 있다. 옛사람들의 운송 수단이나 차량과 같이 타고 달리던 ‘말(馬)’과 부피를 셈하기 위해 담던 도량형인 ‘말(斗)’이 있으며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언어(言語)인 ‘말’이 있다.

사람이 무리를 이루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말이 있기 때문 아닌가 한다. 물론 다른 동물들도 그들만의 특유한 소리로 소통은 하겠지만, 사람들도 말 못 하는 상대나 말이 다른 외국인과도 몸짓으로 간단한 의사소통은 할 수 있다.

말이 없는 인류 사회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인간의 지능이나 사회

의 조직을 비롯하여 인류가 누리는 모든 것이 말의 덕분이 아닌 것이 없다. 인류가 언제부터 말을 사용했는지는 몰라도 말이 없었다면 인류도 다른 동물과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며, 인류 문명의 발전도 없었을 것이다.

세계인류는 가깝게는 가족, 마을, 사회 더 나아가 민족이나 국가도 서로 같은 말로 소통하며 살아

정이 상하는 일은 되도록 없게 해야 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처럼 상냥한 미소와 함께 부드러운 말씨를 쓰는 일이 우리의 사회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입에 침도 바르지 않고 거짓말만 하는 이도 많아 사기를 치고 당하는 세상이

서 성질대로 내뱉은 말은 잘못되었다 해도 고칠 순간도 없고 지울 수도 없다. 옛날 같으면 자기가 그런 말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로 변명은 할 수 있겠지만, 현대에는 음성이 그대로 녹음되어 언제나 필요시에 증거로 쓰여 말은 바이러스처럼 전파된다.

말은 표현 방법에 따라서 그 사람에 됴됨이와 품격이 달라진다. 품격(品格)의 품(品)자는 입구(口)자 셋을 모아 만들어졌다. 즉 입에서 나오는 말로 품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말을 험하게 하든가 추하게 하면 교양 없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추락하고 만다.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은 ‘생각이 언어를 타락시키지만, 언어도 생각을 타락시킨다.’라고 했다. 말이란 그 사람의 내면에 모든 인성을 표현해내기 때문이다. 나쁜 말을 자주 하면 생각도 오염된다. 요즘 청소년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옆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의 욕설로 이어지는 것을 자주 듣게 되는데, 이에 우리 사회의 미래가 염려된다.

## 말이 씨가 된다.

간다. 말의 기원은 사람들이 함께 무리를 이루고 살면서 생성된 인류 문명의 발원이고 원조이며, 이를 기록할 수 있는 글이 만들어지기 시작된 것은 불과 5천 년밖에 안 된다.

원활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고 가는 말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하며 생각은 틀림없이 전달해야 한다. 또한, 점잖고 정답게 말해 감

다. ‘말이 말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처럼 순간 내뱉은 말 한마디가 큰 싸움으로 번지고, 국가 간 마찰에 불씨가 되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말에는 메아리 효과가 있어 자신이 한 말은 자신에게 돌아온다. 사람이 말을 크게 하던, 작게 하던 이내 허공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해

**인생 칼럼**



**강정식**  
시인

우리나라는 온대 지방으로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24절기 중 5월 5일은 입하로서 여름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도 여름이 빨리 오는가 보다. 거리엔 반소매와 반바지를 젊은이들이 활보하고 있다. 봄인가 했더니 여름이 훌쩍 다가온 것이다. 봄이라는 계절 안에서도 5월은 사람들이 가장 살기 좋은 기후를 갖고 있으며 점차 여름으로 접어드는 관문이다. 그렇기에 농부들에겐 가장 바쁜 달이다. 물론 4월에 씨를 뿌리는 곡식도 있지만, 대부분

5월 초에 씨를 뿌리고 심는다. 지난 5월 10일 홍천군 북방면 하화계리에서는 올해 첫 모심기를 한 농가에서 진행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5월에는 가정과 관계있는 각종 행사가 많이 몰려있어 ‘가정의 달’이라고도 칭한다. 5월 4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은 스승의 날, 20일은 성

개최한 잔치이다. 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선생께서 자라는 어린이들을 올바르게 길러주기 위하여 어린이날을 지정해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은 교원 존중과 스승에 대한 존경을 위해 지정되었다. 우리는 의무교육 제도로 인해 어려서부터 배움의 과정을 거

에 대한 예의를 갖춰왔다. 그랬던 것이 사회문화가 극도로 발달하면서 노동 운동이 일어남에 따라 노동조합이 교육까지 확장되었다. 그리하여 교육노조가 설립되었고 교원 스스로가 노동자라 자칭하며 권력화되자 스승의 권위가 추락했다.

또한, 5월에는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고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성년의 날도 있다. 홍천에서는 매년 5월 20일 홍천 향교 청년유도회의 주체·주관하에 관내 18세가 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으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와 권리 의무를 가르쳐 주는 의식을 치른다.

이처럼 5월은 찬란한 기쁨의 달이다. 4월에 피웠던 꽃들이 떨어지면서 과일나무에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좋은 계절이다. 모든 사람에게 행복과 희망, 건강이 가득하길 바란다.

##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년의 날, 21일은 부부의 날이다. 이처럼 5월에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은 것은 아마 5월의 온화한 날씨와 청량한 기후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우리 홍천군에서도 5월 5일 토리숲과 청소년수련관에서 꿈나무 큰 잔치가 이뤄졌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부모가 한데 어울려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친다. 그 배움을 도와주는 사람 부모와 스승이다. 예부터 스승에 대한 예우는 각별했다.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는 유교를 숭상하는 유림도덕과 효를 중요시했고 이에 따라 스승에 대한 예우가 각별했다. 시대적으로 많이 변했지만, 4~50년 전만 해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스승